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파견기간	2023학년도 봄학기	성명	김동규
파견국가	독일	소속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파견대학	TU Munich		

1. 교환 파견 동기

3학년이 되고 졸업이 슬슬 가까워지자 저의 학부 생활에서 글로벌한 경험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내에서 외국인 교환학생 대상으로 버디 활동도 해보고, 교환학생도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낯선 곳에서 공부를 하고 친구도 사귀며 정착해보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외국어로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에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2.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2.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뮌헨공대는 독일 여러 지역에 있는 TU(공과대학) 중 하나로서, 독일의 3대 대도시인 뮌헨에 위치한 독일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입니다. 우수한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뮌헨은 유럽의 중심에 있어 육로를 이용하여 여행 다니기에도 최적의 위치입니다. 비행기는 급하게 싼 가격에 티켓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만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며 당장당장 계획을 세워서 여행 다니기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고 도시가 깔끔해서 뮌헨에 있는 뮌헨공대를 선정하였습니다.

2.2. 파견대학/지역특징

뮌헨은 전통적인 색깔이 많이 남아있는, 독일에서 거의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뮌헨은 영어로 "Bavaria", 독일어로 "Bayern"이라고 읽는 바이에른 주의 주도인데요, 다른 독일 도시들과 참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모든 슈퍼마켓이 저녁 8시에 문을 닫으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전에 미리 장을 다 봐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독일 사람들보다 좀 더 차갑고 차분한 경향이 있습니다.

학기가 처음 시작하는 4월에는 날씨가 정말 안 좋습니다. 덥거나 추운 것보다도, 비가 정말 많이 오고 변덕이 심합니다. 그 때문에 현지 사람들도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에게 "Aprilwetter(4월 날씨)"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전혀 습하지 않은 날씨이기 때문에 그늘 아래에서는 참 시원합니다. 다만 에어컨이 있는 곳이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섭씨 3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상당히 힘든데요, 이럴 경우에는 영국정원이나 이자강을 찾아가 수영을 하며 버티고는 했습니다. 영국정원은 자연 그대로를 중시하는 영국식 정원으로서, 물이 깨끗하고 피크닉, 태닝을 하기에 좋습니다. 저는 겨울에 처음 도착을 했는데요, 0도 정도 되는 기온을 보고 쉽겠거니 생각하다가 감기를 참 많이 걸렸습니다. 겨울에는 공기가 습하다보니 실제 기온보다 체감 기온이 훨씬 춥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우리 김민재 선수도 뛰고 있는 FC 바이에른 뮌헨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홈 경기가 있는 날에는 꾸준히 보러가곤 했는데요, 경기장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꼭 한 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출국 전 준비사항

3.1. 비자 신청

독일에서는 모든 일 처리가 한국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비자 또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Certificate of enrollment가 나오고 비자 테어민(시간 예약)을 잡으면 입국 전에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현지에 와서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쉥겐 협정에 따라 180일 내 90일 체류를 할 수 있고, 독일은 양자협정에 의해 쉥겐 밖에서 입국할 경우 그냥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을 한 다음, 현지에서 비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 90일 내에 비자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독일 일 처리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테어민을 잡는 메일의 답장을 받는 데에도 몇 주가 걸리며, 답장을 받으면 테어민 날짜는 또 몇 주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자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를 다시 수령하러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비자 체류 90일 기간이 끝나면, 비자 테어민이 있을 경우 독일 내에 있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해외 여행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임시 비자를 받기도 하는데 이 또한 담당자 따라 외국 여행이 가능한 비자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미리 비자를 받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2. 보험 & 슈페어콘토

독일 뮌헨공대 교환학생은 의무적으로 공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엑스파트리오라는 사이트에서 보험 그리고 슈페어콘토를 함께 가입하였는데요, 슈페어콘토는 미리 거금의 돈을 넣어놓고 달마다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뮌헨 같은 경우는 잔고 증명을 하면 슈페어콘토를 만들지 않아도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슈페어콘토를 만들었습니다. 환율이 1300원일 때 만들었는데 그사이 환율이 많이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참 잘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환율이 낮은 시기에는 슈페어콘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3. 기숙사 신청

지원을 할 때 기숙사를 같이 신청하며 1월쯤에 기숙사 배정을 받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은 웬만하면 기숙사를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를 안 구하고 따로 집을 알아보면 일단 방을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다른 사람들과 주방 화장실 공유하는 집도 거의 두 배나 하니 기숙사를 배정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독일 입국 후 해야할 것들

4.1. 안멜둥

단순 관광목적이 아닌 이상 독일에서는 거주지 등록인 '안멜둥'을 14일 안에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요, 기숙사 측에서 보내주는 안멜둥 서류 인쇄하고 여권 들고 가면 됩니다. 독일의 행정이 느리기도 하고 학생들이 대거 입주하는 시기에는 테어민 잡기가 힘드므로 저는 한두 달 전에 미리 입주 다음 날로 테어민을 잡아놨습니다. 현지에서 비자를 받을 경우 안멜둥을 해야 그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이 미리 테어민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2. 수강신청

독일의 학교들은 보통 수강 신청 기간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6월 정도까지 언제든 강의들을 넣고 뺄 수 있습니다. 4월 17일 개강이었는데 3~4월부터 수강 신청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유학생, 교환학생들을 위한 기초 독일어 수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수강 신청을 해야하니 알

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 시험 신청

뮌헨공대의 경우 강의 수강 신청과 시험 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강의 신청을 안하고 시험만 신청해서 학점을 따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꼭 시험 신청 까먹지 말고 하셔서 학점까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5. 학업

저의 전공은 화학생물공학부인데, 뮌헨공대의 경우 화학부로 교환학생을 가려면 독일어를 할 줄 알아야합니다. 따라서 저는 Bioscience 학부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생물 분야에서도 듣고 싶었던 과목들이 있었는데 그 과목들이 올해 전부 독일어로 열린다고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생물 분야 강의는 듣지 못하고 경영학부 과목들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나마 영어로 조금 개설된 화학 관련 강의들도 듣고 싶었으나 한국에서 이미 많은 전공 과목들을 듣고 온 상태라 새롭게 들을만한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5.1. 수강과목 1 – Cost accounting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원가 계산>으로, 이번 학기에 상당히 흥미롭게 공부한 과목입니다. 엔지니어들은 회사에 많은 돈을 가져다줘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공대생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돈'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돈에 대해 많이 시야가 트이게 해준 과목입니다.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격주로 QnA 세션, 그리고 매주 연습시간(Exercise)이 있었습니다. Exercise의 경우 조교들이랑 함께 문제풀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강의인만큼 강의 구성이 정말 잘 짜여져 있고 복습하기도 편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과목입니다.

5.2. 수강과목 2 – Marketing and Innovation Management

마케팅 및 혁신 관리라는 과목인데 사실 이건 <Marketing>과 <Technology and Innovation Management>의 두 과목입니다. 시험을 두 과목 한꺼번에 칠 수도 있고, 따로 따로 칠 수도 있지만 보통 한꺼번에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꺼번에 쳤는데요, 내용이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뮌헨공대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듣습니다. 생각보다 시험은 선지들이 까다로워서 많아서 힘들었지만 시험 전에 올려준 Mock test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설마 여기서 얼마나 나오겠어 하고 Mock test를 안 보고 개념만 계속 공부했는데 이 때문에 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6. 생활

6.1. 물가

뮌헨의 마트 물가는 정말 저렴합니다. 저는 슈퍼마켓 중에서 LIDL을 많이 가는데요, 삼겹살이 거의 100g에 1,000원 정도밖에 안해서 거의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6.2. 축구(FC 바이에른 뮌헨)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FC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장, 알리안츠 아레나는 여러분이 꼭 가보셔야 하는 곳입니다. 한국의 김민재 선수도 뛰고 있는데 경기장이 참 좋고 거의 항상 이기기 때문에 분위기도 최고입니다.

6.3. 여행

뮌헨 오기 전에 걱정했던 것이 뮌헨 공항에 저가항공이 많이 안 다닌다는 것이었는데요, 비행기

가 편하기는 하지만 몇 시간 전에 미리 가야하고 수하물도 추가 요금 내야하는 것 생각하면 육로로 다니는 게 더 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뮌헨은 유럽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유럽의 중앙에 있는데요, 반나절 안에 파리, 암스테르담, 밀란, 베니스, 프라하, 부다페스트 등 여러 명소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뮌헨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알프스도 있어서 하이킹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입니다.

6.4. 교통

독일에서는 49유로티켓(도이칠란트 티켓)으로 전역에서 저속 열차(RE,RB) 및 지하철, 버스를 모두 다 탈 수 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학생들은 29유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꼭 패스권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6.5. 친구

뮌헨공대에서는 매주 수요일 2시마다 Language Café가 열립니다. 여기서 많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었고 영어, 일본어 등의 회화도 많이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ESN에서 여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서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ESN에서 가는 1박 이상의 여행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 기준 평가가 상당히 안 좋았으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교환학생을 오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유학 준비, 여행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현지인처럼 살아가고 즐기고 싶어서 최대한 많은 현지 친구들을 만드려고 노력했고, 매주 FC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에 출석하고 있으며, 심지어 맥주 축제 노래들도 엄청 많이 외웠습니다. 그 결과 외국 친구들이 저보고 '뮌헨에서 제일 재밌는 한국인'이라면서 외국친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해 가면서 내면적으로도 많이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특히 독일 사람들은 'Politeness'와 'Respect'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 또한 이곳에서 행동 하나 하나를 할 때 계속 고민하게 되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화의 Participant로서 살아가보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고 귀중한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문화적인 경험, 그리고 여러 행사들에 많이 나가셔서 뮌헨에서만 할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